

“ESG 활동 함께해요”... 유통업계 큰형들, 中企 협력사에 손

**CJ온스타일 1억 상당 물품 지원
롯데백 16개사 대상 무상 컨설팅
이마트 PSI 발행... 협력사 배포**

유통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납품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ESG 활동이 곧 자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CJ온스타일은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30개 협력사에 총 1억원 상당의 종이테이프 물품을 지원했다. 협력사의 자체적인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진행한 종이테이프 사업은 지난 6월 진행한 직매입 등 센터 자체 배송 상품 포장재 전면 교체에 이은 친환경 패키징 확대의 일환이다.

CJ온스타일이 이번에 종이테이프 물품을 지원하는 기업은 CJ온스타일과



CJ온스타일이 협력사에 종이테이프와 친환경 패키지를 지원한다. /CJ온스타일

협력 관계가 깊으며 ESG 경영에 관심이 높은 30개 중소기업이다. 새싹보리, 타트체리 등 인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HL사이언스’, 피부 관리기기 듀얼소닉을 판매하는 ‘지온메디텍’, 유아동 교구를 판매하는 ‘블루레빗’까지 패션, 식품,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 선정됐다.

이제까지 비닐 테이프 대신 종이테이프를 적용해 CJ온스타일이 배송한 택배 박스 개수는 총 1000만 개에 달하며 비닐 테이프 저감량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6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중소 파트너사 중 16개사를 선정해 무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8월 말부터

컨설팅을 시작해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에 맞는 ESG 가이드 라인 교육을 통해 ESG 경영 전략 및 지표 수립 등을 도울 계획이다. 컨설팅이 종료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ESG 우수기업 인증이 부여되고, 당사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 펀드 지원 연장 및 기금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밖에 정부의 지원과 시중 은행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작년 하반기에 4개 중소 파트너사를 선정해 ESG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참여한 파트너사는 올해 6월 동반성장위원회 ESG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마트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상품’의 기준과 핵심과제를 제시한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SI(프로젝트 서스터너빌리티 이니셔

티브)’를 발행하고 유관기업과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을 선도 중이다. PSI는 이마트와 WWF(세계자연기금)가 함께 연구해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을 담은 표준 가이드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문단으로 환경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이마트 바이어 및 품질관리팀 등이 참여했고 향후 주요 협력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지난 6월 CJ제일제당과 ‘친환경 지속가능성 협업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협력사들에 PSI를 배포했다. 이마트는 협력사 ESG리스크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공급망 ESG 관리 ▲협력사 ESG 역량 개선 ▲임직원 존중 등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브릿지바이오, ‘BBT-877’ 임상 2상 고도화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후보물질)

엡 메드테크 기업 ‘브레이노믹스’ 협력 AI 프로그램 접목... 효능 입체적 파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 중인 BBT-877의 임상을 위해 영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메드테크 기업 ‘브레이노믹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시험대상자로 하는 BBT-877 제2상 임상시험에서 브레이노믹스의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e-ILD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HRCT) 이미지 등 자동화 처리된 영상학적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여 약물 효과 등의 평가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특발성 폐섬유증 질환 분야의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임상 지표인 ‘노력성 폐활량(FVC)’에 더해 영상학적 데이터 기반의 ‘이미징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가 새로운 약물 효능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하게 된다. 폐섬유화의 정량적 영상 분석을 통해 약물 효능 측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 반응 및 질환의 경과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BBT-

877 임상운영 및 후속 임상시험의 설계에도 효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미징 바이오마커’는 영상의학 데이터를 통해 환자 진단, 병기 결정, 질환 예후 예측 및 치료 반응성 평가 등의 결과를 수치화하여 양적 분석을 돕고 있다.

양사는 BBT-877 임상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 환자군을 정확하게 선별하여 모집할 기법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약물의 치료 효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질환 개선 여부를 정확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농심, ‘자원순환의 날 행사’ 국무총리 표창

자원순환 프로세스 구축 등 공로 인정

농심은 6일 환경부가 주최한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플라스틱 사용 절감, 재활용 용이성 향상, 자원순환 프로세스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에 있어 농심은 최근 3년간 총 2500여 톤을 절감했다. 주요 라면의 포장 필름 두께와 폭을 줄

여 총 사용량을 10% 가량 절감했으며, 일부 제품은 묽음 포장을 띠지로 교체해 플라스틱 필름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재질 개선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농심은 주요 컵라면의 재질을 PS에서 종이로 변경했다.

이밖에 농심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업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 재활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지난 5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풀무원식품(주)박광순 각자대표(왼쪽)와 (주)풀무원푸드앤컬처 이우봉 대표이사(오른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항현 이사장(가운데)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협약

풀무원이 장애인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에 두팔을 걷었다.

풀무원식품(주), (주)풀무원푸드앤컬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날 풀무원푸드앤컬처 본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풀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

지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풀무원식품 박광순 대표이사(각자대표), 풀무원푸드앤컬처 이우봉 대표이사(각자대표)와 공단 조항현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풀무원식품과 풀무원푸드앤컬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편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 도입 ▲24개월 이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대목동병원 안정신 교수 연구 외과여자의사회 사업 선정

이대목동병원 융합 의학연구원 안정신 교수(사진)가 지난달 27일 ‘대한외과여자의사회 2022년 연구 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주제는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빅데이터 및 단백체 연구’로 2년 간 2000 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세경 기자

안 교수는 “여외과의사 양성을 위해 연구과제 지원을 해준 대한외과여자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연구를 통해 유방암 발병기전 관여에 핵심이 되는 단백체를 규명해 유방암 치료 및 예방에 응용 가능한 물질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유럽종양학회 주최 컨퍼런스에서 해외 연구자에게 주는 ‘트래블 그랜트’, 대한종양외과학회 우수 구연상, 이화목동 영타터 어워드 등을 수상해 신진 혁신형 의사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 ‘대웅 DDS 교육 프로그램’ 4기 출범

인도네시아 국립대약대 교수 참여

대웅제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글로벌 전문가 양성에 더욱 힘을 쏟는다.

대웅제약은 지난 5일 대웅제약 연구개발(R&D)센터에서 ‘대웅 글로벌 DDS 교육 프로그램’ 4기 발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웅 글로벌 DDS 교육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

할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제약·바이오 연구 실무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석박사 대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웅 글로벌 DDS 교육 프로그램 4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대웅제약 R&D센터에서 진행된다.

특히 4기부터는 인도네시아 국립대약대 교수가 참여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인재 육성에만 아니라 제제 및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오픈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CJ프레시웨이, 전자식권 서비스 도입

식신 협업... 모바일앱 통해 식대 결제

CJ프레시웨이는 푸드테크 기업 ‘식신’과 손잡고, 식자재를 유통하는 단체급식 고객사에 전자 식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식권 도입으로 구내식당 이용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식대를 결

제할 수 있게 됐다. 또 CJ프레시웨이의 고객사인 급식업체는 수기 장부 관리 등을 온라인화해 관리 페이지에서 실시간 식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식대 정산 및 관리로 소요되는 급식업체의 인력과 비용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